

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다음을 나누었다.



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오늘날 있는 곳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.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데 감사함을 의미합니다. 무수한 왕국이 그분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. 구주께서는 “그리고 만일 네가 끝까지 충실하면,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련해 놓은 거처에서 너는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”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(로널드 에이 래스번드, “The Divine Destiny of His Daughters” [BYU 여성 대회, 2021년 4월 30일], broadcasts.ChurchofJesusChrist.org)